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19일 '2018년 과학계 10대 인물'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허젠쿠이, 차오위안, 비비안 슬론, 앤서니 브라운, 제시 웨이드, 비 인 여오, 바버라 레이-벤터. <연합뉴스-네이처 자료사진>

# 초전도현상 발견... 인간 유전자 편집... DNA 탐정...

## 국제학술지 '네이처', 2018 과학계 10대 인물 선정 '우리는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질문 직시

유전자가위(CRISPR-Cas9)로 유전자 편집 아기를 탄생시켜 윤리논쟁을 불러일으킨 중국 남방과학기술대학(SUST) 허젠쿠이 교수 등 10명이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뽑은 2018년 10대 인물에 이름을 올렸다. 리치 모나스터스키 네이처 특집 편집장은 19일 "초전도현상 발견부터, 많은 비판을 받은 인간 유전자편집 등까지 올해 과학계에서 화제를 모은 인물들을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네이처는 10대 인물의 순위를 매기진 않았지만 첫 번째로 중국 출신의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박사과정 학생 차오위안(21)을 꼽았다. 18살에 중국에서 학부 과정을 마치고 MIT에 입학한 그는 그래핀 연구에서 이미 스타로 꼽힌다. 그는 탄소 원자 한 층으로 이루어진 그래핀 2개 층을 1.1도 정도 엇갈리게 겹쳐놓으면 절대온도 0K(영하 273℃)에 가까운 온도에서 저항이 없어지는 초전도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네이처는 "이 발견으로 물리학의 새로운 분야가 시작됐다"며 "언젠가 더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과 수송 기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유전자가위로 인공수정 배아의 유전자를 편집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저항성이 있는 쌍둥이 여아가 태어났다고 발표해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중국 허젠쿠이 교수도 10대 인물로 뽑혔다. 그의 발표는 생명연구 윤리를 무시해 신생아들을 잠재적 위험에 빠뜨렸다는 우려로 큰 비난을 자초했다. 9만년 전에 살았던 13세 소녀의 뼈화석 DNA를 분석해 어머니가 네안데르탈인이고 아버지가 데니소바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독일 막스플랑크 진화인류학 연구소(MPI-EVA) 비비안 슬론 박사의 연구도 올해 가장 놀라운 연구성과의 하나로 꼽혔다. 우주로 연구하는 네덜란드 레이던천문대 앤서니 브라운 박사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요시카와 마코토 박사 등 2명도 주목을 받았다. 앤서니 브라운 박사는 130억개 이상의 별의 위치와 움직임을 담은 사상 최대규모의 우주지도도 만드는 가이아 계획을 총지휘한 과학자다. 요시카와 마코토 박사는 소행성 '류구'에 착륙해 표면을 조사하고 표본을 채취한 뒤 지구로 돌아오는 소형 탐사선 '하야부사2'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의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주도해 다시 한번 온난화에 대해 경종을 울린 프랑수아 기후학자 발레리 메종-델모트 박사,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노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비 인 여오 말레이시아 에너지과학기술 장관도 10대 인물에 선정됐다. 또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CL)의 고분자물리학자 제시 웨이드 교수는 여성 등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연구자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위키피디아에 적극적으로 참여, 400페이지 이상을 작성해 과학계의 다양성을 넓힌 업적으로 10대 인물에 뽑혔다. 유럽의 베테랑 과학정책 관료인 로버트

-젠 스미츠는 더 많은 과학논문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출판하는 '플랜 S'을 출범시킨 성과로 주목받았다. 공공 유전체 데이터 분석 연구를 통해 1970-198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수십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골든 스테이트 킬러')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 기여한 캘리포니아주 변리사 바버라 레이-벤터도 10대 인물에 이름을 올렸다. 모나스터스키 편집장은 "이들 10명의 이야기는 2018년 과학계에서 가장 기억될만한 사건으로 주목받았다"며 "이들은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어려운 질문을 직시하도록 만들었다"고 선정 의미를 밝혔다. /연합뉴스

## 동화 속 수학의 나라로 초대합니다

광주과학관, 내년 3월까지 '수학나라의 엘리스' 특별전

### 보고 만지고 느끼는 전시

어린이·청소년이 동화 속 수학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국립광주과학관은 특별전 '수학나라의 엘리스'를 내년 3월3일까지 북구 오동동 광주과학관 기획전실에서 개최한다. 국립법인과과학관 공동 특별전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지난 6월 국립부산과학관, 9월 국립대구과학관에 이어 광주과학관에서 순회 개최한다. 수학 특별전은 수학자 루이스 캐럴의 유명 동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에서 영감을 받아 관람객을 동화 속 수학나라로 초대하는 내용으로 기획됐다. 특히 거대함과 아기자기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신비로운 전시 공간으로 동화 속 수학나라를 재현했다. 60여개의 전시품으로 채워진 전시는 수학을 '보고' (Watch), '만지고' (Touch),

'느끼는' (Feel) 3개 구역으로 구성돼있다. 이곳에서 교과서 속 수학, 생활 속 수학, 도시와 산업 속의 수학을 재미있는 놀이 체험으로 배울 수 있다. '신기한 수학 세계', '신비한 정원', '수수께끼의 방', '공작 부인의 미술관' 등 시각과 촉각·청각을 자극하는 체험형 콘텐츠가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전시의 강점은 동화 속 수학나라를 표방하면서도 깊이 있는 수학 교과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함수와 방정식 등의 기초 수학에서부터 일상 속 수학의 비밀을 풀어가는 산업 수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과 과정을 포함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세계적인 매스 아트 작가인 네덜란드 출신 라이노스 로엘롭스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관람료 5000원(20인 이상 단체 관람 4000원). 문의 062-960-6210-2.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김선아(왼쪽) 광주과학관장과 매스 아트 작가 라이노스 로엘롭스가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 광주과학관, 해외 작가와 수리과학문화 대중화 협력

국립광주과학관이 수리과학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해외 작가와 협력한다. 광주과학관은 지난 17일 광주과학관 관장실에서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매스 아트(Math-Art) 작가인 라이노스 로엘롭스(Rinus Roelofs)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로엘롭스는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매스 아티스트로, 기하학적 무늬를 활용한 창의적인 수학-예술 융합작품을 꾸준히 제작·전시해오고 있다. 이날 협약에서는 호남지역 과학문화산

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 전시, 교육자료 등의 정보 교환 및 매스 아트 프로그램 단독 활용 등에 대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광주과학관은 협약을 기반으로 매스 아트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해 수학과 예술의 접점을 콘텐츠화할 예정이다. 또한 광주과학관을 중심으로 매스 아트 페스티벌·매스 아트 갤러리 등을 실시하며 매스 아트 산업을 브랜드화를 위한 상호 정보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지식재산권 활용 게임 활성화 포럼

오늘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글로벌게임센터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글로벌게임센터는 20일 나주 혁신도시 스페이스코워에서 '지식재산권 활용 게임 활성화 포럼'을 연다. 전남 게임 산업 관계자와 정책·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지식재산권(IP)을 화두로 제시한다. 또 콘텐츠 업계의 성공적인 지식재산권 활용 사례와 더불어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포럼은 총 3부로 구성된다. 먼저 배준호 (주)키나게임즈 대표가 연사로 나서 자사가 쌓아온 지식재산권 활용 경험과 성공 사례를 공유한다. (주)키나게임즈는 일본의 유명 만화 '페어리 테일'과 '세인트 세이아'를 활용해 일본 게임시장에 안착했고 올해 네이버 인기 웹툰 '선천적 얼간이들'을 원작으로 한 모바일 게임을 출시해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콘텐츠기업이 지

식재산권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법적·정책적 지원을 안내한다. 정경민 도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가 저작권·특허권·상표권 등 각종 지식재산권리를 적절하게 이용해 콘텐츠를 보호하는 방안을 실제 기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다음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기업의 연구개발(R&D)과 창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 중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 제도'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올해로 3차 년도를 맞은 전남 지역 기반 게임 육성 사업의 추진 현황과 내년도 시장 진출 전략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일반상업지역)  
토지:500㎡(151평) 건물:2500㎡(756평)  
지상6층 **매매가:45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보증금 10억, 월수입 1천)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36억**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770㎡(233평) 건물:1,458㎡(441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 토지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임야, 계획관리지역
- ★ [토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토지:5,324㎡(1611평) **매매가:59억6천만**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83억1천만**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매매·임대 다량보유**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